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일자리*

황 선 응**

1. 머리말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증가가 국내 일자리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 생산, 수출 기회를 대체해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의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본재·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고용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더 우세한가?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에 따라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 결론은 무역비용 절감 및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DI)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고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 개도국에 투자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글도 국내 고용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선진국 투자의 경우와 개도국 투자의 경우로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국내 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예컨대, 화학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자기 자신의 고용뿐 아니라 철강, 플라스틱, 고무, 유리, 섬유 산업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의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 이 글은 2016년에 발간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에서 필자가 집필한 제2장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shwang@pknu.ac.kr).

effect)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용에 대한 직접효과(direct effect)에만 주목하면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이러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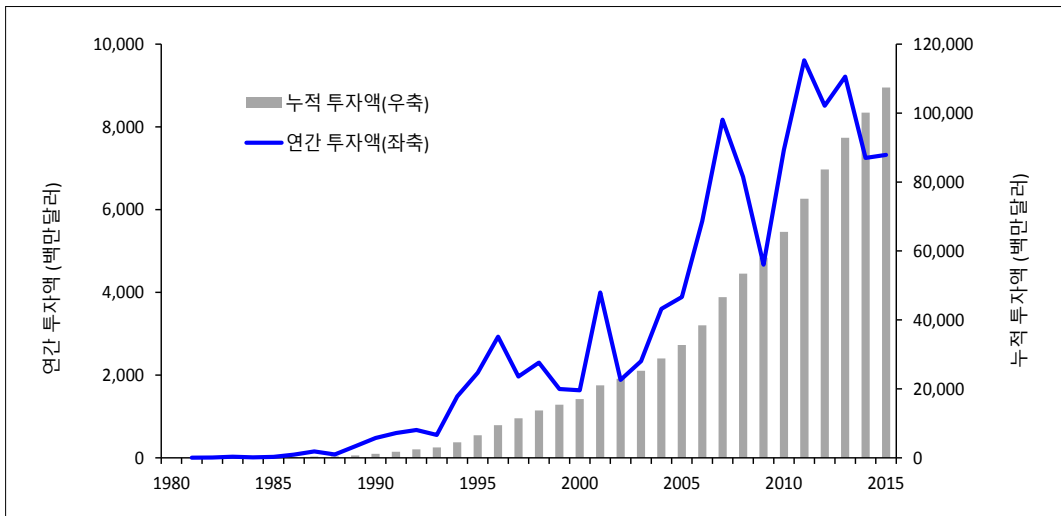
제II장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이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제III장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제IV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II.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추이

1.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0년 4.8억 달러였던 연간 투자액은 2015년 73.2억 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투자액은 같은 기간 동안 11.8억 달러에서 1,074.4억 달러로 91배 이상 증가했다. 변동성이 매우 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1994~96년, 2001년, 2004~07년, 2010~11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1990년대 후반과 2008~09년 경기 수축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정점 이후 현재까지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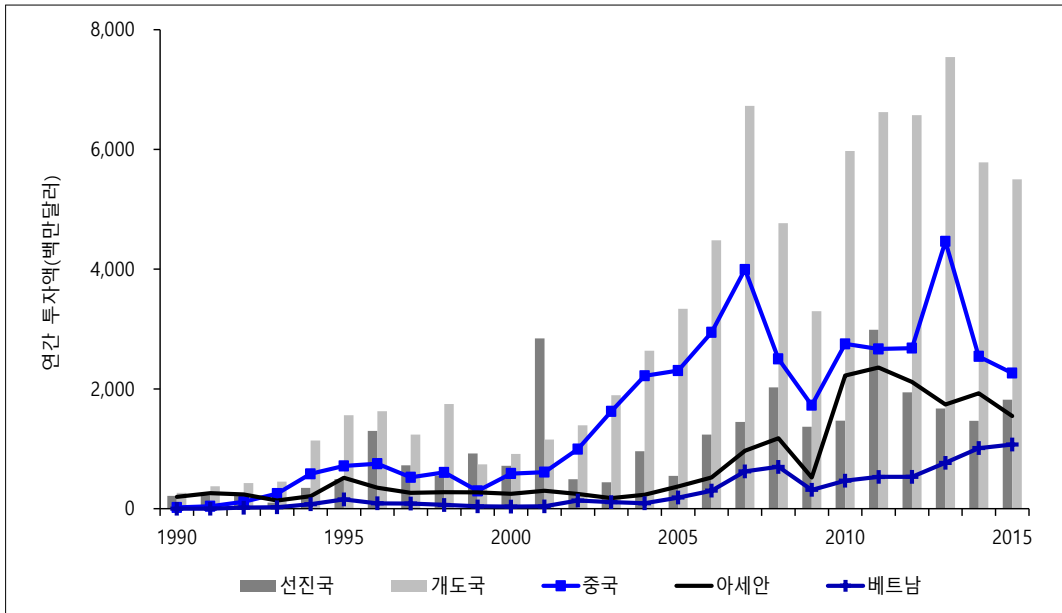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투자 지역을 구분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도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이다. 1) 2015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개도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0%(선진국은 27%)이며, 그중에서도 아시아의 비중(66.2%)이 압도적으로 높다. 1990년대에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투자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고, 이러한 추세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 2015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38.0%, 미국은 12.5%, 베트남은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도 상당히 높다. 2015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의 비중은 18.2%에 이른다.

[그림 2] 제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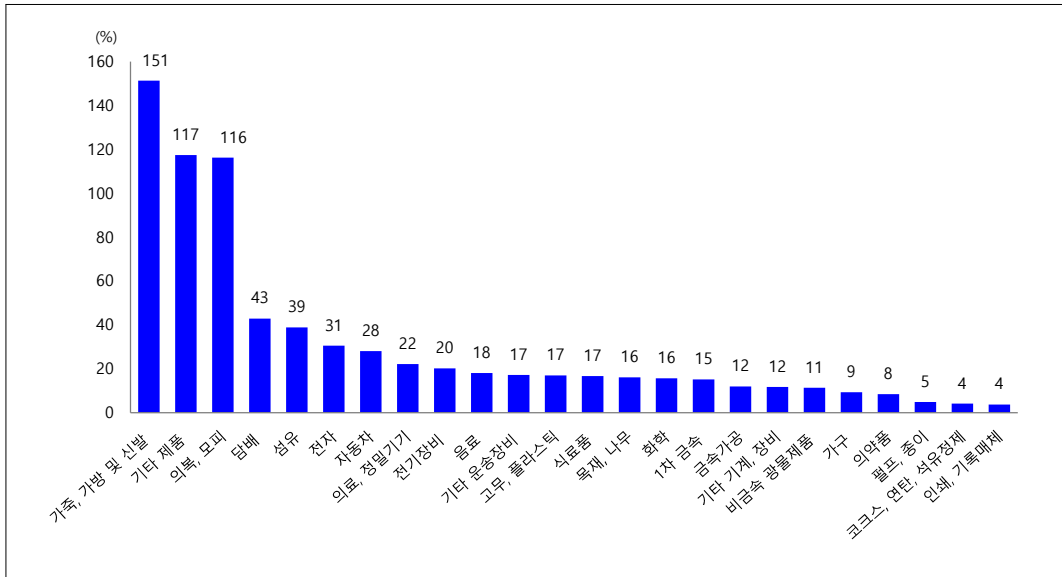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시장진출 및 기술도입을 위한 수평적 FDI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과 아세안 국가 등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저임 활용을 위한 수직적 FDI의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는 2015년 누적 투자액 중 저임 활용 투자 비중이 31.7%이지만, 선진국

1) 이 글은 UN UNCTAD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큰 나라를 선진국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개도국으로 정의한다.

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세부 업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전자, 통신, 자동차, 금속, 화학, 기계 등 국내 생산 및 자본 규모가 큰 중화학 업종이 제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하지만, 국내 자본스톡 대비 해외 자본스톡 비율, 즉 해외직접투자 집약도(intensity)를 보면 섬유, 의복, 가죽 같은 경공업 부문의 집약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죽, 가방, 신발, 의복 등 일부 경공업의 경우에는 2015년 현재 해외에 축적된 자본 규모가 국내에 축적된 자본 규모를 상회하기도 한다.

[그림 3] 제조업 업종별 국내 자본스톡 대비 해외 자본스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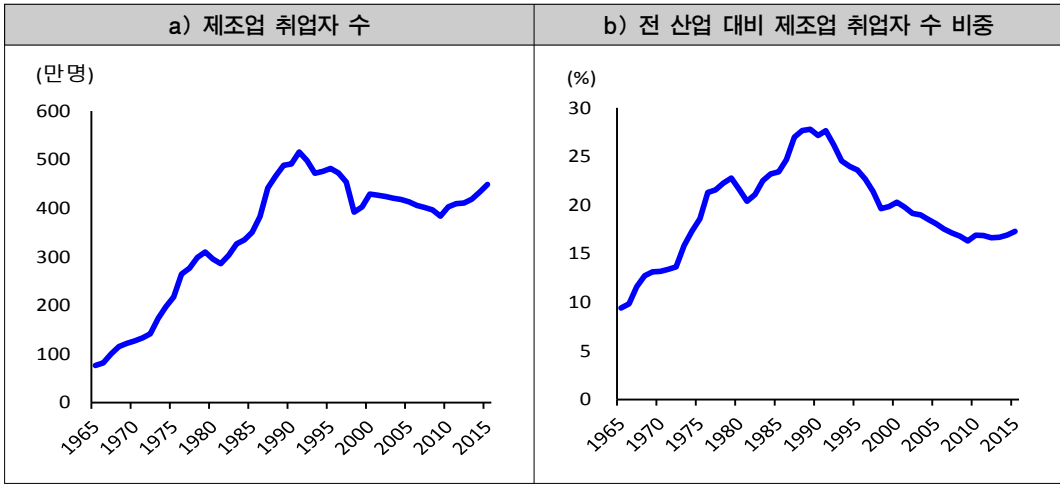


주 : 2015년 누적 투자금액 기준. 국내 자본스톡은 유형자산 연말잔액.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2. 제조업 고용 추이

제조업 고용은 해외직접투자와 반대로 1990년대 이후 심각한 부진을 겪었다. [그림 4]의 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1년 516만 명의 정점 이후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449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즉, 지난 25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가 67만 명이나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그로 인해, [그림 4]의 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도 1989년 27.8%의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로 축소되었다.

[그림 4] 제조업 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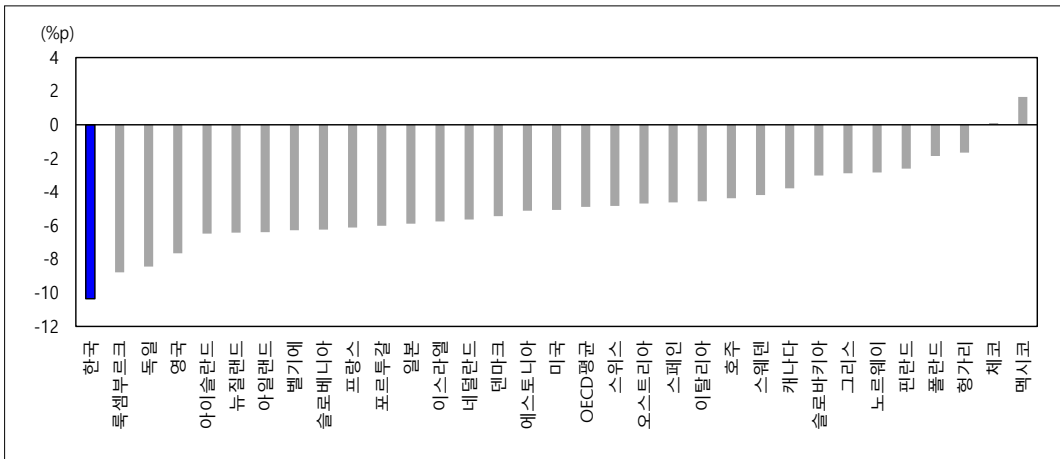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림 5]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 감소폭은 -10.4%p로 OECD 회원국 평균 감소폭 -4.9%p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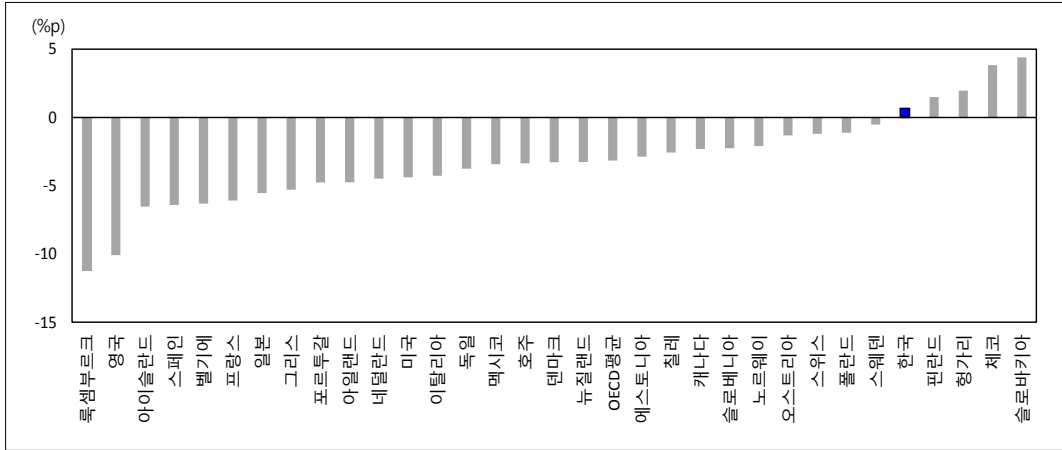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비중 축소는 제조업 생산 비중이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인가? [그림 5]의 b)를 보면 실상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제조업 생산

[그림 5] 제조업 생산과 고용 비중 변화 국제 비교

a) 1990~2007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 변화



b) 1990~2007년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주 : 전 산업 취업자 수와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1990년 또는 2007년 자료가 없는 국가들은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 OECD, STAN Database (ISIC Rev.3).

비중이 축소될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 생산 비중이 확대됐다.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국가는 북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핀란드와 서유럽 국가들의 생산거점 역할을 한 동유럽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뿐이었다.2) 이들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만 유독 제조업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이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말이다.

Ⅲ.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 : 산업 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의 상반된 추이를 보여주는 앞 장의 그림들도 인상적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글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조업 각 업종의 해외직접투자가 자기 자신의 고용 뿐 아니라 다른 연관 산업들의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 무역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문헌에도 산업 간 파급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가 미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Acemoglu, Akcigit, and Kerr

2) 핀란드는 2007년 이후 제조업 생산 비중이 급속히 하락했다.

(2016)는 산업별 직접효과와 산업 간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산업별 직접효과만을 고려할 때보다 5배 이상 큰 부정적 효과가 관찰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Acemoglu, Autor, Dom, Hanson, and Price(2016)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가 미국의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산업별 직접효과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 수는 80만 개, 산업 간 파급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 수는 260만 개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 글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파급 경로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제조업 각 세부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전후방 연관 업종의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정했다.³⁾ 제조업 78개 업종의 2000~14년 패널 자료를 이용했고, 회귀 모형의 계수는 시스템 GMM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추정했다. 추정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 자신’은 어느 특정 업종의 해외직접투자 집약도가 1%p 증가할 때 해당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몇 %p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은 제조업 각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전·후방 연관 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t’는 같은 연도 해외직접투자 변화에 대한 반응을, ‘t-1’은 1년 전 해외직접투자 변화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다.

<표 1>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디를 향하느냐

<표 1>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비교

		투자 지역		
		전 체	선진국	개도국
해외투자 추진주체 (추진시점)	자기 자신(t)	0.021 (0.023)	0.026 (0.051)	0.038 (0.036)
	자기 자신(t-1)	0.003 (0.017)	0.008 (0.034)	0.008 (0.024)
	전방 산업(t)	-0.367** (0.157)	-0.077 (0.322)	-0.546** (0.249)
	전방 산업(t-1)	0.315 (0.243)	0.700** (0.342)	0.342 (0.317)
	후방 산업(t)	-0.220 (0.422)	-0.355 (1.749)	-0.562 (0.404)
	후방 산업(t-1)	-1.126** (0.440)	-0.330 (1.658)	-1.285*** (0.427)
관측값		1014	1014	1014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업종별 부가가치, 국내 자본스톡, 실질임금 증가율과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임(황선웅(2016) 참조).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DB」.

3) 모형의 구조, 자료, 추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선웅(2016) 참조.

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도국 투자의 경우에는 전방 산업(t)과 후방 산업(t-1)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선진국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전방 산업(t-1)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 2>는 국가별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t-1)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중국, 아세안,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후방 산업(t-1)으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세 국가 모두 유의했고, 전방 산업으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중국(t)의 경우에만 5%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전후방 연관 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중간재 거래 구조 변화가 신규 거래처 발굴 비용, 제품 변경 및 생산 재조직 비용 같은 상당한 조정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내 생산 분업구조 재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표 2>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 : 국가 간 비교

		투자 국가			
		미국	중국	아세안	베트남
해외투자 추진주체 (추진시점)	자기 자신(t)	0.051 (0.049)	0.027 (0.038)	0.102 (0.087)	0.053 (0.201)
	자기 자신(t-1)	0.093** (0.038)	0.032 (0.027)	0.001 (0.074)	0.021 (0.240)
	전방 산업(t)	1.832 (2.068)	-1.282** (0.651)	-0.125 (0.254)	-0.179 (0.590)
	전방 산업(t-1)	2.939 (2.566)	0.758 (0.697)	-0.345 (0.453)	-1.352* (0.795)
	후방 산업(t)	-3.121 (3.738)	-1.016 (1.055)	-0.765 (0.891)	-1.929 (2.071)
	후방 산업(t-1)	-0.256 (2.272)	-2.266*** (0.813)	-2.302*** (0.754)	-7.398*** (2.423)
관측값		1014	1014	1014	1014

주 : <표 1>을 참조.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DB」.

IV. 맺음말

이 글은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의 추이를 살펴본 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지난 20여 년간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국내 고용은 절대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78개 업종 2000~14년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도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글은 그러한 효과가 국내 산업 간 중간재 투입-산출 관계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 황선웅(201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성재 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제2장, 한국노동연구원.
- Acemoglu, D., U. Akcigit, and W. Kerr(2016), “Networks and the macroeconomy: An empirical exploration,” Eichenbaum, M. & J. Parker(eds.),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15*, Volume 30,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p.276~335.
- Acemoglu, D., D. Autor, D. Dorn, G. H. Hanson, and B. Price(2016),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S1), pp.S141~S198.